

# 고등교육 정책소식

## 1.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년 8월 27일(금)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에 위탁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1996년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건의되어 교원양성교육의 여건 조성, 프로그램의 질 제고 등을 통한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어 1주기 평가(1998~2002년), 2주기 평가(2003~2009년)가 종료되었으며, 이번 3주기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교 45개와 교육대학교 10개를 대상으로 경영 및 여건, 프로그램, 성과 등 3개 평가영역(15개 평가준거, 43개 평가지표) 대해 평가한 것이다. 기존의 1, 2주기 평가와는 달리 이번 평가의 주요특징은 기존 투입 및 과정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예비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기술·태도 등을 갖추고 있는지, 각 교원양성기관이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의 위계적 구조를 대학, 교원양성과정, 학과(전공)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학과(전공) 평가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실수업 역량을 교원양성교육과정에서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시연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 확보 정도를 전공과목, 교과교육, 교직과목별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재정 운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 환원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측정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새롭게 도입된 수업시연 평가와 평가 전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업시연 평가 전문가 70명(1개 평가팀이 5개 대학평가), 현장실사 평가전문가 88명(1개 평가팀이 5개 대학평가)으로 “교원양성기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위원회(평가(수업시연 평가, 현장실사 평가)와 만

족도 조사(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교원임용률 조사 등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 2. 이주호 장관, KAIST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들과 간담회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년 8월 31일(화) 오후 KAIST를 방문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호 장관이 차관 시절에 KAIST를 방문하여 '학교장 추천전형'에 합격한 일반계고·전문계고 학생 35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이후 1년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로, 그간 한 학기 동안 대학생활을 경험한 1학년생들로부터 대학생활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주호 장관은, KAIST가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서 학교의 건학이념 및 특성에 맞추어 인재상을 설정하고,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하는 등 입학사정관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을 격려하며,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과학도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한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3.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7일 11시(파리 현지기준) 2010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0년 OECD 교육지표는 '08년 통계자료 기준(재정통계 '07년 결산)으로 총 26개 교육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총 39개국(OECD회원국 31, 비회원국 8(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러시아, 슬로베니아(10.7.21 OECD가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수율(79%)과 고등교육 이수율(37%)은 OECD 평균(고등학교 71%, 고등교육 28%)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은 작년(97%)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58%)은 작년 1위 캐나다(금년 5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고등교육 입학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의 입학률은 38%로 칠레(48%)와 뉴질랜드(46%)에 이어 OECD국가 중 3위를,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과정의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56%)을 상회하였다. 반면, 대학원(박사) 과정의 입학률(2.2%)은 OECD 평균(2.4%)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성인(25

~64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남자 29%, 여자 31%로 OECD 평균(남자 41%, 여자 4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남자 14%, 여자 11%)은 OECD 평균(남자 35%, 여자 37%)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평생학습 참여자의 비형식교육 학습시간은 평균 132시간으로 OECD 평균(79시간)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많았다. 교육재정 측면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정부부담 4.2%, 민간부담 2.8%)로서 OECD 평균(5.7%, 정부부담 4.8%, 민간부담 0.9%)보다 높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 비율의 순위는 전체 OECD 31개국 중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학생 비율은 1.3%로 여전히 OECD 평균(8.5%)보다 낮으나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00년 대비 '08년 외국학생의 변화지수(증가율)는 1,195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 4.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

임을 밝혔다.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이 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금번 조치는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학계 및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와 같이,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제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대출한도 설정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 위원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를 거쳐 기준을 마련(8.20)하였다.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 당초, 8월 20일 마련한 안에 의하면 정책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대출 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 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9월 6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개최한 결과, 학자금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기존 학자금대출한도 설정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 15%에서 10%로 축소하였고,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설 대학 등 대출이 없는 대학 등을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서 제외시켜 2011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선정하였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향후 대출제한 기준 및 적용 면제 대상, 대출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대출제한은 '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제한 대학 중 '10년 교육여건 지표가 개선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하여,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내년도 평가를 위해 금년말까지 발전된

지표(예 : 하위 1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준값)를 제시하고, 동 수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대출제한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 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5.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9월 28일,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며, 교원 양성기관의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거점 국립대학을 단계적으로 법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국립대학의 운영체제를 효율화·합리화하고 경쟁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9월 28일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국립대학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를 유도하는 인사·보수체제 구축, 운영시스템

효율화, 국립대학 체질개선 및 책무성 확보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 6. 교과부 2011년도 예산 48조 5,132 억원 편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11년도 정부 예산안을 '10년 45조 1,462억원 대비 3조 3,669억원이 증액된 48조 5,13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7.5%를 증액한 규모로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를 2%p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서민 교육복지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초·원천연구,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녹색교육 및 연구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친서민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특성화고 전액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

큰 특징으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해 특성화 학생에 대한 전액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국고 지원분 1,264억원(지방비 포함 3,159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특성화고 재학생이 학비 부담없

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생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신설(1.9만명), 전문대 우수학생장학금 96억원 신설(1,850명) 및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881억원\*을 반영하는 등 교육복지분야를 크게 확충하였다. 시간당 강의로 단가 인상(4.3 → 5.3천원)과 시간강사 대상 인문사회연구비 증액(173억원)한다.

〈글로벌 수준의 국내박사 인력양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규로 반영〉

고등교육 부문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년도 5조 390억원에서 0.2% 증액된 5조 5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박사생들에게 몰입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Fellowship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 박사양성사업을 신설(95억원)하고,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지원(WCU, 1,240억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2,370억원),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확충(2,510억원), 광역경제권 인재양성(1,325억원)등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금년보다 1,500억원을 증액한 1조 2,197억원을 반영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0년도 5,378억원에서 19.8% 증액된 6,4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 및 시도의 평생교육활성화(59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323억원) 및 전문대학교육역량 강화(2,600억원), 국제교육협력 증진을 위해 693억원

을 반영하였다.

〈과학기술분야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장동력 확충에 지속적인 지원 확대〉

과학기술 부문은 '10년도 3조 4,039억원에서 9.2% 증액된 3조 7,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풀뿌리 기초연구(7,500억원) 및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 등 미래 핵심기초연구(8,888억 → 1조 222억원),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 나로호 3차 발사, 위성개발 등 우주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265억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집중지원하는 글로벌 프론티어사업(150억 → 500억원), 기초과학연구원 건립과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 기초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녹색기술·신성장동력 확충에 8,176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산하 출연기관(지할 11개, 기초기술연구회등 14개)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관고유 기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1조 3,628억 → 1조 4,584억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저변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과학관 육성(906억 → 993억원) 등의 지원도 증액 반영하였다. 2011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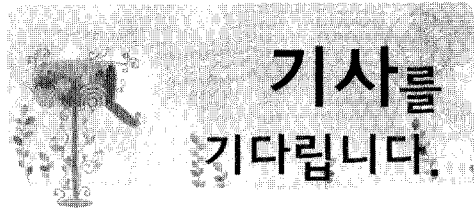
## 7.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및 선진화 추진

빠르면, 금년말부터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0월 11일(월)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동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된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설립기준완화, 시설물확보기준 완화, 심사체계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설립기준 완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등에 유치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教員) 등에 대해서는 국내학교의 설립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현지국가의 본교수준을 갖출 경우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시설물 확보기준 완화) 대학교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도 1천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심사체계 선진화) 아울러 설립신청기간도 12개월 전 신청, 6개월 전 심사결과 통보로 구체화되며,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도 체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글로벌캠퍼스 등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유

치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 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8.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1년 상반기 신입교원, 2012년 비정년 교원, 2013년 전면시행으로 순차적 확대 -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 하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일반직 공무원(4급 과장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10년 만에 국립대학 교원에게도 확대하여 적용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지난 '99년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당시 국립대학 교원들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대학사회의 여건 부족으로 보류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년부터 시행될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계획과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안은 지난 4월에 발표된 시안에 대해 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국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 weeklynews@kcue.co.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

<http://www.kcue.or.kr/> → 대학교육소식 → 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 Member Universities News

###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